

“악역 트라우마 ‘착한 의사’로 치유중”

‘낭만닥터 김사부’ 남도일 역 변우민

‘아내의 유혹’ 후유증 벗어나는 데 7년 걸려

“그날 촬영 대본이 150페이지였는데 수술실 장면만 62페이지나 됐어요. 성범죄자 수술하는 장면만 하루 종일 찍었죠.”

최근 방송된 SBS TV 월화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8회는 딸과 아내를 성폭행한 범죄자에게 복수하려는 남자(이철민 분)가 낫을 들고 수술실에 난입해 수술 중인 김사부(한석규)와 대립하는 에피소드로 시청률 20%(닐슨코리아)를 넘겼다.

배우 변우민(52)은 과거 천재 외과의 김사부의 친구로 프리랜서 마취전문의이자 산장식당 ‘오다카다’ 주인인 남도일을 연기하고 있다.

변우민은 시청률이 급상승 중인 ‘낭만닥터 김사부’의 촬영장 풍경과 오랜만에 안방극장으로 돌아온 자신의 근황을 얘기했다.

“지상파 드라마는 ‘아내의 유혹’ 이후 처음이에요. ‘아내의 유혹’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 데 7년이 걸린 셈이죠. 그동안 출연 제의가 없었던 건 아닌데 죄다 악역이어서 응하질 않았어요.”

변우민은 2009년 SBS 일일드라마 ‘아내의 유혹’에서 아내의 친구와 바람이 나 아내를 살해하려고 하는 등 온갖 악행을 일삼는 남자 주인공 공교빈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아내의 유혹’은 27%의 평균 시청률을 기록하고 중국, 대만을 비롯해 27개국에 수출되는 등 흥행에 큰 성공을 거뒀지만, 변우민에게는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다.

“낭만닥터는 배우를 찾던 유인식 감독이 먼저 연락해오셔서 출연하게 됐어요. 현재 역할이 너무 편하고 좋아요. 예전에는 제가 모든 걸 책임지고 끌고 나가야 했는데, 지금은 작게 천천히 가고 싶어요. 다 배우고 영(0)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낭만닥터 김사부’의 강점으로는 공감 가는 에피소드를 들었다.

그는 “현실의 문제를 돌담병원이라는 공간 속에 극적으로 집어 넣는 데 정말 공감이 간다”고 말했다.

자신이 연기하는 남도일에 대해선 “저도 아직 제 과거를 모른다”면서 웃었다.

“말하자면 시청자에게선 친한 친구(김사부)의 친구인 셈인데, 저는 그게 좋아요. 애는 누구랑 무슨 관계라고 한 번에 다 얘기해버리는 드라마가 많은데 그러면 재미가 없죠. 실제로도 대본이 완성된 게 아니라 등장인물마다 숨은 과거가 있고 발전 가능성이 커서 매력적 이죠.”

유인식 PD는 물론 다른 출연자들과도 예전에 작품을 함께 한 적이 없다고 했다.

“한석규 씨도 이번에 처음 봤어요. 64년생 오피 동갑인데 예전부터 봐 온 느낌이에요. 수간호사 진경씨도 되게 오래 알던 사이 같아요.”

촬영장의 분위기는 더 할 수 없이 좋다고 했다.

“호흡이 좋고, 진짜 재밌어요. 저는 1주일에 나흘 정도 촬영하는 데 ‘오늘 몇 시에 끝날 거 같냐’고 묻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변우민은 1980~90년대 안방극장을 휘어잡던 꽃미남 청춘스타였다.

“저도 그건 부정 안해요.(웃음) 그때 백화점에서 모 그룹 광고 팬사인회를 했는데 1만5000명쯤 몰려서 영업을 못 할 정도였죠. 그런데 그때는 경쟁자가 없어서 너무 고수 질주를 했어요. 인기에 비해 기초가 미약했던 거죠.”

최정삼급 남자 배우로 박상원, 최수종, 변우민 ‘빅3’ 체제가 확고하던 시기다.

기억에 남는 당시 작품으로는 MBC 드라마 ‘서울시나위’(1989)와 ‘어둔 하늘 어둔새’(1990)를 꼽았다.

‘아내의 유혹’ 이후로는 배우 활동을 거의 접고 한류 관련 사업과 광고 모델 일만 하면서 지냈다고 전했다. 그사이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생활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고 했다. 2010년 결혼한 아내 김효진(32)씨와는 무려 20살 차이가 난다. 결혼 3년만인 2013년 딸 하은이를 낳았다.

“우리 집은 그야말로 ‘다세대’죠. 하지만 세대 차는 전혀 못 느껴요. 부부 관계는 지식, 연령, 학력, 경력 이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알겠어요.”

연합뉴스

‘최순실 게이트’ 풍자하면 PD 교체?

KBS ‘개그콘서트’ tvN ‘SNL코리아’ 외압 의혹

최근 ‘최순실 게이트’를 소재로 한 정치 풍자 콩트로 화제를 낳은 TV 코미디 프로그램 연출 PD들이 잇달아 교체됐다.

최근 KBS 2TV ‘개그콘서트’ 제작전에 따르면 지난 해 3월부터 ‘개그콘서트’ 연출을 맡아온 조준희 PD가 교체될 예정이다.

제작진은 “PD 교체는 정기인사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랄한 정치 풍자를 선보인 ‘개그콘서트’의 시사개그 코너 ‘민상토론2’도 지속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제작진은 이에 대해 “이난주 민상토론2 녹화를 안 한 것은 맞지만, 신규 코너 ‘대통령’을 개설한다”며 “두 코너를 같이 가져갈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tvN의 성인 코미디 프로그램 ‘SNL코리아8’ 제작진은 격주로 연출을 맡아온 민진기, 김민경 PD 가운데 민 PD가 교체된다고 밝혔다.

민 PD는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인 최씨를 소재로 한 각종 에피소드로 관심을 모은 지난달 초 방송을 연출했었다.

제작진은 “민 PD의 교체는 내년부터 들어가는 새 에능을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미리 결정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KBS와 tvN에서는 해당 PD의 교체가 내부 인사와 방송 일정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수위 높은 정치 풍자극이 인기를 끈 직후 이뤄진 것이어서 일각에선 외압에 의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SBS TV ‘웃음을 찾는 사람들’(웃찾사)도 최근 높은 수위의 정치 풍자 코미디를 선보이고 있다.

‘웃찾사’를 연출 중인 안철호 PD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신변에 별다른 이상은 없다”며 ‘살점’, ‘내 친구는 대통령’, ‘LTE뉴스’ 등 정치 풍자 코너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연합뉴스

논란 끊이지 않는 ‘SNL코리아’

이번엔 엄앵란 비하? ...폐지 주장까지

아이돌 가수 성희롱 문제로 홍역을 치렀던 tvN 코미디쇼 ‘SNL코리아’가 영화배우 엄앵란(80)을 비하하는 듯한 연기로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3일 생방송된 ‘SNL코리아’에서는 개그맨 정이랑(34)이 콩트 연기를 하던 중 “나는 잡을 가슴이 없다”고 말했다.

시청자와 누리꾼들은 엄앵란을 빗댄 ‘김앵란’ 캐릭터로 등장하는 정이랑의 연기가 올해 초 유방암으로 가슴절제 수술을 받은 엄앵란을 조롱했다며 분개했다.

“SNL코리아’ 제작진은 다음날 “정이랑이 정말로 엄앵란 개인사를 모른 채 방송 내용에 맞춰 애드리브를 하다가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서 “재방송분에서는 문제의 장면을 삭제했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이랑은 엄앵란 측에 사과 의사를 전달했다고 소속사 코엔스타즈가 전했다. 정이랑은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제가 잘 알지 못해서 저지른 잘못”이라면서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개그우먼 이세영(27) 하차로까지 이어진 남성 아이돌 그룹 B1A4 성희롱 사태가 수습되기도 전에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누리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비난이 쏟아지는 가운데 프로그램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진행자 신동엽은 이날 방송에서 B1A4 성희롱 논란에 대해 “한 주간 불편함과 실망을 느꼈을 많은 분에게 제가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며 “잘못된 행동, 생각이었(이세영)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잘못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결그룹 마마무가 특별 출연한 이날 방송은 평균 2.8%, 최고 3.7%의 시청률(닐슨코리아 유료플랫폼 기준)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결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연체나 불날>	10 KBC 모닝와이드 3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55 중계방송 최순실 국정조사 2차 기관보고	10 좋은 아침
10	00 중계방송 최순실관련 국정조사특위 2차 기관보고	40 지구촌 뉴스		00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기관보고
11		00 월화드라마 <우리집에 사는 남자>(재)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 뉴스 20 통일 전망대	00 SBS 12 뉴스 30 KBC 12뉴스 50 TV블로그 꿈지락 55 토크콘서트 화통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05 KBS네트워크특선 방송의 전설 55 별별가족	00 이웃집 찰스 (재)	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재)	55 닥터 365
2	00 명인(재) 50 콘서트 필	00 KBS 뉴스타임 10 사람과 사람	00 키즈 사이언스 6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특
3	40 이욱정 PD의 자연 담은 한끼 50 안녕 우리말 55 튜튼생활체조	00 자몽공부책상 위키 2 30 TV유치원	00 MBC 뉴스 10 독?독! 키즈스쿨 55 깨미담합체	00 3시 뉴스브리핑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2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재)	30 특집 SBS 뉴스 이슈진단
5	00 KBS 뉴스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 특공대 (재)	00 MBC이브닝 뉴스	30 SBS 뉴스 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루기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SBS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25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우리집에 사는 남자>	00 월화 특별기획 <불아성>	00 월화미니시리즈 <낭만닥터 김사부>
11	00 KBS 뉴스라인 4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MBC 청사특집 다큐멘터리 <미래인간 AI>	10 씬스틸러 드라마전황
12	20 인간극장 스페셜(재)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0 MBC 뉴스24 35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세계전문록 아틀라스 <히말라야 새해맞이> 06:00 한국기행 06:20 세계테마기행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 마루의 어드벤처 07:30 로보카 폴리 07:45 꼬마버스 타요 08:00 덩동덩 유치원 1~2 08:30 얼마 까투리 08:45 부릉!부릉! 부루미즈 09:00 방귀대장 뽕뽕이 09:15 출동! 슈퍼핑크	09:30 이말! 스페이스 정글 09:40 부모-위대한 엄마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부 새우조림과 별치 된장무침>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산다 12:40 지식채널 e 12:45 EBS 스페셜 프로젝트 13:40 출겨운 수학 EBS MATH 13:50 그림을 그려요(2) 13:55 시계마을 티키토!	14:25 허풍선이 과학쇼 14:55 모피와 친구들 15:05 피터 래빗 15:20 우주탐험가 젯 15:35 요술 상자(2) 15:45 출동! 슈퍼핑크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16:30 부릉!부릉! 부루미즈(재) 16:45 덩동덩 유치원 1~2(재) 17:15 얼마 까투리 17:30 로보카 폴리(재) 17:45 꼬마버스 타요(재) 18:00 생방송 특목! 보리하니1~4 19:00 강철소년과 파이어로보	19:30 EBS 뉴스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20:40 다큐 오늘 <명불마를 열치 부자(父子)> 20:50 세계테마기행 <정열의 나라,멕시코를 가다> 21:30 한국기행 <뜨거워서 겨울 1부 함께하면 아니 좋을까> 21:50 EBS 다큐 프리덤 <울의 가족-불인의 대물림> 22:45 달라졌어요 23:35 경이로운 자연의 세계 24:05 세상의 모든 법칙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5일 (음 11월 7일 辛酉)

子

48년생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60년생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있어야만 행국을 유지하게 되리라. 72년생 지연되면 손해를 부르니 숙연속결 하는 것이 생산성을 제고한다. 84년생 집착한다면 역효과가 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6, 85

丑

49년생 수습하여야 할 임장에 놓이게 되리라. 61년생 중대한 고비에 와 있으니 주도면밀하게 대처해야 한다. 73년생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법이다. 85년생 한계할 일에는 빠지지 말고 반드시 동참하라. 행운의 숫자 : 15, 80

寅

50년생 지난 세월에 비해서는 훨씬 수월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 62년생 남을 시켜서는 답답할 것이니 직접 실행하는 것이 낫다. 74년생 희망 사항을 어렵사리 이루어 가리라. 86년생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2, 55

卯

51년생 어색하게 격식을 차리는 것보다는 자연스러움이 더 좋다. 63년생 눈부신 아점을 맞이하리라. 75년생 중차대한 일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87년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융통성을 발휘함으로써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라. 행운의 숫자 : 99, 51

辰

40년생 망설이지 말고 과단성 있게 전환하라. 52년생 점진적으로 단계를 밟아 나아가야한다. 64년생 처음 것이 백번 낫다. 76년생 긍정적일 방향으로 매달려야질 것이다. 88년생 구체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롭다. 행운의 숫자 : 90, 33

巳

41년생 변화를 추구한다면 발전하는 양상을 띤다. 53년생 균형과 절제가 필요하다. 65년생 주권을 갖고 소신껏 행하라. 77년생 긴히 도와줘야 할 일이 생긴다. 89년생 길사는 적으니 하는 일을 신중하게 처리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78, 68

午

42년생 모름지기 승리의 여신은 노력하는 이를 사랑 하느니라. 54년생 판단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다. 66년생 사소한 것이 주원인으로 작용하는 위상이니라. 78년생 걱정할 바가 아니니 앞만 보고 나가도 된다. 행운의 숫자 : 49, 38

未

43년생 한번 인연을 맺으면 이익은 없고 손해만 끼치게 될 것이니 상호 관련시키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55년생 전혀 관계없으니 개의치 말라. 67년생 차원이 다른 세계이다. 79년생 미처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52, 21

申

44년생 투명하고 정확하게 다루어야만 할 것이다. 56년생 실행하기 전에 유경험자의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 68년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한다. 80년생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만 후환이 없겠다. 행운의 숫자 : 16, 30

酉

45년생 영광이 따르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하루이다. 57년생 불균형이 보이니 지체하지 말고 바로 잡자. 69년생 참으로 희귀한 기회를 접하게 될 것이니 놓치지 말라. 81년생 망심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76, 03

戌

46년생 이제해 결말을 지어야 할 단계가 되었으니 미루지 말라. 58년생 처신만 잘한다면 큰 지장이 없다. 70년생 상승거점을 마련하는 전환기에 와 있다. 82년생 직접 만나야 해결점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처지이다. 행운의 숫자 : 53, 96

亥

47년생 회자정리하는 법이니 아무리 아깝고 정이 들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묵은 것과 결별해야만 한다. 59년생 일부러 나서면 더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 71년생 정성을 들이다 보면 보람을 느끼게 되리라. 83년생 실효성이 증하다. 행운의 숫자 : 84, 36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형” ☎010-9790-8237